

정부는 대산 1호 프로젝트 사업재편 관련 절차를 차질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.

<보도내용>

- 대산의 롯데케미칼-HD현대케미칼간 1호 프로젝트에 대한 공정위 기업 결합심사 및 금융권 금융지원방안 검토 절차가 지연되면서 사업재편 추진동력이 약화되고 있음

<정부 입장>

- 대산 1호 프로젝트에 대한 기업결합 심사와 후속지원 절차가 지연되면서 사업재편이 무산위기라는 보도는 사실이 아닙니다.
- 정부는 대산 1호 프로젝트 관련 절차를 차질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.
 - 사업재편계획심의위원회에서는 대산 1호 기업들이 제출한 사업재편 계획서를 심의 중이며, 정부는 사업재편 승인시 금융·세제·규제완화등을 포함한 정부지원 패키지를 함께 발표할 예정입니다.
 - 금융지원방안은 “산업 구조혁신 지원을 위한 채권금융기관 자율협의회 운영협약”에 따라 지난 12월부터 채권금융기관 실사중이며, 사업재편 심의 일정에 맞추어 차질없이 검토 진행 중입니다.
 - 이와 별개로 공정위도 롯데케미칼-HD현대케미칼 기업결합에 대한 사전 심사를 공정거래법상 절차에 따라 차질없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.

담당 부서	산업통상부 공급망정책관 화학산업과	책임자	과 장	김건혁	(044-203-4930)
		담당자	사무관	하원석	(044-203-4933)
	공정거래위원회 기업거래결합심사국 국제기업결합과	책임자	과 장	신용호	(044-200-4633)
		담당자	사무관	안주현	(044-200-4636)
	금융위원회 기업구조개선과	책임자	과 장	박정원	(02-2100-2920)
		담당자	사무관	문성배	(02-2100-2936)